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I*

김 교 현 전 경 구
충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척도를 개발하려 하였다. 중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경험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과 국내외 선행연구들로부터 문항을 구성하여 예비척도를 만들었다. 문항분석 과정을 거쳐 척도를 재구성하고,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안산과 대전의 중학생 204명(예비문항 구성을 위한 연구)과 279명(문항분석 및 신뢰도·타당도 연구)이었다.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면에서 연구용 척도로 사용하기에 수용할만 했다.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대처 척도 역시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받아들일만 했다. 각 척도의 구성 타당도와 대처 유형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변화를 많이 겪는 시기다. 변화의 일부는 자신으로부터 유래한다. 신체적·성적 발달이 급격해지고 인지적으로도 형식적인 조작이 가능해져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활발해진다. 자발성이나 자율에 대한 욕구나 동기가 점차 중요해진다. 변화의 다른 일부는 환경으로부터 유래한다. 교육환경이 또한 국민학교 시기와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진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서 기대하는 역할의 성질도 아동기와는 크게 다르다. 이런 내·외부로부터 비롯되는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더욱 성숙되고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발달하는데 실패하고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있는 한국의 중학생들도 위에서 언급된 변화를 겪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변화 외에도 매우 경쟁적인 입시 중심

* 이 논문은 첫번째 저자에게 지원된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 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의 교육환경과 급속한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나 변화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특유한 환경이다. 비행, 폭력, 약물남용, 일탈된 성행동, 자살 혹은 학업 동기의 상실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듯하다. 이런 인식이 타당하다면, 한국 중학생들의 적응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처방하기 위한 유용한 관점의 하나로 스트레스-대처의 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스트레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 주위의 자원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대처로 볼 수 있다. 청소년 개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질이 어떠하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이나 심리적 행복·안녕감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정서적 부적응(예, Compas, 1987a; Gersten, Langer, Eisenberg, & Orzeck, 1974; Johnson & McCutcheon, 1980; Swearingen & Cohen, 1985)이나 신체적 건강 상태(예, Bedell, Giordani, Amour, Tavormina, & Boll, 1977; Jacobs & Charles, 1980)와 관련되거나, 대처 방식이 행동적 및 정서적 적응(예, Asarnow, Carlson, & Guthrie, 1987; Causey & Dubow, 1992;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과 관련됨을 지적하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증거들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의 문제를 스트레스와 대처의 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Causey & Dubow, 1992; Swearingen & Cohen, 1985).

본 연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종전의 척도 개발에서 문제로 지적된 점들을 보완한 중학생용 스트레스와 대처 척도를 개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문제를 잠시 언급하고 각 척도의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근래에 들어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급속히 증가해 왔지만, 스트레스와 대처의 개념적 정의나 작용기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들이 혼란스럽게 난립하고 있는 형편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Lazarus와 동료들(예, Folkman & Lazarus, 1980; Lazarus & Folkman, 1984)의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교섭적인 관점이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개인이 가진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과 개인 사이의 특정한 관계'(Lazarus & Folkman, 1984, p.9)로 정의하며, 대처를 '개인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한 내·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 및 행동적인 노력'(p.141)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제어이론(전경구, 1989; Carver & Scheier, 1981)의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환경이나 내부에서 유래하는 혼란이 개인의 항상성 유지를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상태'로, 대처를 '내적 또는 외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개인적 또는 대리적 자원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구성요소별로 고유한 통제기능을 증대시키려는 행동적 및 인지-정서적인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제어이론적인 조망은 인간 유기체를,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며 끊임없이 자기조절해 가는 목표지향적인 제어체제로 본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지각한 현실이 자신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향하고 있는 수준이나 상태에서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났을 때 발생하며, 대처는 그런 바람직한 상태와 현 상태 사이의 괴리를 회복하려는 문제해결적 반

응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스트레스와 대처를 제어이론적 관점에서 보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보다 자세한 논의는 전경구와 김교헌, 1989; 1991; 전경구, 1992 참조).

가.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유형 중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생활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Lazarus와 Cohen(1977)은 사건이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범위라는 면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1)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전쟁이나 지진 혹은 홍수 등의 재난적 사건, (2) 소수인에게 한정되어 일어나지만,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변화를 초래케 하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이혼 또는 실직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 그리고 (3)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교통 체증이나 물건의 분실 등과 같은 일상적인 골치거리(혹은 사소한 생활사건) 등으로 나누었다. Holmes와 Rahe(1967)가 사회재적응평정 척도(SRRS)를 개발한 이래로, 대부분의 인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위의 (2)나 (3)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Coddington(1971a, b)은 Holmes와 Rahe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과 청소년용 생활사건 척도를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정상 청소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근접된 시점에서 경험한 다종의 사소한 생활사건들에 중점을 두었다. Lazarus와 Cohen의 분류로 보면 주로 (3) 범주에 해당하며, (2) 범주에 해당하는 것도 소수 있다. 재난적 사건이나 중요한 생활사건들도 청소년들의 적응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들일 수 있다.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의 중요한 생활사건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점은 대다수가 흔히 경험하는 사소한 생활사건에 두었다.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 척도에서 기술된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과 준거변인으로 삼고 있는 질병 상태가 내용상 유사해서 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Hudgens(1974)는 SRRS의 전체 43개 사건 가운데 29개가 내용적으로 질병의 상태나 증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문제는 준거변인과의 오염문제를 제거한 객관적인 척도의 개발을 주장하는 Dohrenwend 등(예, Dohrenwend, Krasnoff, Askenas, & Dohrenwend, 1978; Dohrenwend & Shrout, 1985; Zautra, Guaraccia, & Dohrenwend, 1986)과 동일한 사건이라도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영향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강조하는 Lazarus, DeLongis, Folkman 및 Gruen(1985) 등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사건 자체에 대한 기술은 주관적인 평가가 배제되게 객관적으로 했다. 한편 객관적으로 기술된 사건의 주관적인 의미에 대한 평가를 사건의 경험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 객관적 측정 대 주관적 측정의 논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게 했다.

생활스트레스의 측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생활스트레스 척도들에서 사용하는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방향의 사건은 스트레스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Holmes와 Rahe(1967) 그리고 Coddington(1971a, b) 등은 스트레스의 핵심을 재적응을 요구하는 변화로 보았다. 그래서 뛰어난 성취 등과 같은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재적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생활 사건들은 질병이나 건강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미미했고, 부적 생활사건들이 일관되게 질병이나 건강과 관련되었다(예, Swearingen & Cohen, 1985; Vinokur & Selzer, 1979; Zautra & Reich, 1983). 제어이론에서도 스트레스를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로 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인 방향의 생활사건만을 다루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현재의 우리 실정에 맞는 척도의 개발이었다. 사회구조나 문화가 서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그 특유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청소년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들을 참고는 하더라도 스트레스 사건의 주된 내용은 한국의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에서 직접 구성하려 했다.

나. 대처 척도의 구성

대처 척도의 구성에서 흔히 부딪히는 어려움중의 하나는 대처를 의미있는 하위유형으로 나누는 일이다. 이 일은 스트레스의 하위 분류에 비해서 더욱 어렵다. 그 까닭은, 문제의 유형이나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동일한 대처가 상이한 의미를 지니거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유형의 대처 노력이 흔히 동시에 경주되기도 하며, 대처의 기능과 결과를 혼동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Lazarus 등(Folkman & Lazarus, 1980;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Lazarus & Folkman, 1984)은 대처의 유형을 문제중심적인 것과 정서중심적인 것으로 크게 나눈다. 문제중심적인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직면적 대처나 계획적인 문제해결 등이 하위유형으로 포함된다. 정서중심적인 대처는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 유발된 부적응 정서 반응을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자기 통제나 거리두기 등의 하위유형이 포함된다.

한편, Roth와 Cohen(1986)은 대처를, 대처의 초점보다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접근적 전략과 회피적 전략으로 개념적으로 분류했다. 접근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유발자극에 접근해 가는 인지, 정서 및 행동적인 활동으로 정보나 사회적 지지의

추구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에 반해 회피적 대처 전략은 스트레스 유발 자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극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처 방식으로, 당면 문제를 부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화풀이를 하는 등의 예가 여기에 속한다.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나눔 방식은 스트레스 유발 자극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문제중심과 접근적 대처), 스트레스 자극을 피하거나 정서적 반응을 통제하려는 간접적인 접근(정서중심과 회피적 대처)이라는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문제중심이나 정서중심 혹은, 접근적이거나 회피적인 대처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흔히 함께 일어나고 그 결과도 대처 과정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통제력이 있는 조건이라면, 접근적 혹은 문제중심적인 대처는 긍정적인 결과와, 그리고 정서 혹은 회피적인 대처는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향성도 찾을 수 있다(예, Carver, Scheir & Weintraub, 1989; Causey & Dubow, 1992; Endler & Parker, 1990).

국내에서는 전경구 등(전경구, 김교현, 1989; 전경구, 조신용, 김교현, 1992; 전경구, 조신용, 노명래, 손정락, 김교현, 1992; 전경구, 1992)이 제어이론의 관점에서 대처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전경구 등은 대처 방식을 그들이 가정한 인간 제어체계의 관점에서 생활스트레스와 관련된 중요한 하위 구성요소로 세분하고,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th와 Cohen(1986)의 방식을 따라 국민학생용 대처척도를 개발한 Causey와 Dubow(1992)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여 대처방식을 분류했다. 그들은 접근적 대처 전략으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추구를, 그리고 회피적 대처 전략으로 거리두기와 정서적 반응을 하위 구분했다. 정서적 반응은 다시 외부 발산(externalizing)과 내사화(internalizing)로 하위 분류된다. 이 밖에도, 전경구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처의 연구 결과와 청소년이나 아동 대상의 대처 연구

(Band & Weisz, 1988; Compas, 1987b;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유유경, 1990)에서 추출된 몇 가지 대처 방식을 추가했다. 여기에 속하는 하위유형으로는, 긍정적 비교, 종교적 대처 및 소망적 사고 등이 포함된다.

대처 연구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처 방식의 안정성에 관한 의문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환경이나 스트레스 문제의 유형 등이 달라짐에 따라 상이한 대처 전략이 요구되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대처 전략도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안정된 성향으로 대처 방식을 다루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다. Folkman과 Lazarus(1980)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황이 통제가능한 것으로 지각되면(예, 작업 스트레스) 문제중심적인 대처가 더 많이 사용되고,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지각되면(예, 건강관련 스트레스) 정서중심적인 대처가 더 많이 사용됨을 발견했다. 김교현과 전경구(1993)도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질이 만성적이고 통제력이 낮은 경우(예, 건강이나 종교 문제)에는 부정이나 종교에 의지하기 등의 대처가, 이에 반해 만성적이기는 하지만 통제력이 높은 문제(예, 가치관이나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등의 대처가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mpas 등(1988)이나 Causey와 Dubow(199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처 방식은 당면하는 문제가 달라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두 연구에서는 모두 친구와의 다툼이나 불화와 나쁜 성적을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다루었는데, 성질이 다른 두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동일한 대처 방식들은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처 방식의 안정성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Compas 등(1988)이나 Causey와 Dubow(1992)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나쁜 성적'

과 '친구와의 불화'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각기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나쁜 성적과 친구와의 불화 문제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당면하는 스트레스 유발 자극으로 알려져 있다.

방 법

가. 피험자 및 문항 구성 절차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직접 경험 자료를 얻기 위하여 대전(101명)과 안산(103)명의 중학생 204명에게 생활 경험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했다. 질문지에서는 먼저, 지난 1년 동안 학교 생활과 학교 밖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스트레스 경험을 각기 3사례씩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앞서 기술한 사건들에 대해 각기 어떻게 대처하였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만약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런 대처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처를 하나만 골라서 다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해당학교의 교사들이 1992년 10월경에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10-40명을 단위로 하여 집단으로 받았다.

전경구와 김교현(1991) 그리고 김교현과 전경구(1993)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생활스트레스를 대인관계와 당면과제 영역으로 크게 나누었다.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자유응답 반응을 대인관계와 당면과제 영역으로 나눈 뒤에, 다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하위 범주들을 구성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선행 연구(전경구와 김교현, 1991)와 유사하게, 가족, 동성 친구, 이성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로 하위 구분할 수 있었다. 당면과제 영역에서는 학업, 오락 및 여가활동, 건강 및 신체발육, 그리고 일상생활 문제 등으로 하위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당면 과제들은 대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과는 학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이 달랐다.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당면과제로는 가치 및 종교, 장래 및 진로, 경제문제 등이었다. 8개의 하위 영역별로 분류된 문항들은 객관적인 사건으로 기술되었다.

한편, Kranner, Feldman, Weinberger 및 Ford(1987)나 Swearingen과 Cohen(1985) 등의 외국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한국의 중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280개의 생활 스트레스 문항들이 얻어졌다. 이 문항들을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3명과 10명의 중학생들에게 문항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는가를 검토하게 하여,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은 수정했다. 8개의 하위 영역별로 문항수를 비슷하게 하고 가능하면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경험 빈도가 많은 문항들을 선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97개의 생활 스트레스 척도 예비 문항이 최종 선발되었다.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처 척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중학생들에게 알맞는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4명의 중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자유응답하게 했다. 여기에서 얻어진 대처방식 문항들은 대처의 하위 유형별로 나뉘어지고 빈도가 계산되었다. 대처의 하위 유형별 분류는 앞서 언급한 대로 Causey와 Dubow(1992) 및 Roth와 Cohen(1986)의 방식을 따랐다. 접근적 대처 전략의 하위 유형에는 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 추구 및 긍정적 비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피적 대처 전략은 거리두기, 외적 감정 발산, 내적 감정 억제, 소망적 사고 및 종교적 대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여기에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 일부를 추가하여 103개의 대처 문항을 얻었다. 스트레스 척도에서의 문항 구성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최종 60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대처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다.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의 예비 척도는 준거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함께 2개의 검사지 조합으

로 만들어졌다. 검사지 조합 1은 스트레스 문항 중 48개와 '나쁜 성적'에 대한 대처를 묻는 문항을 비롯하여, 자기 효능감, 우울 및 신체적 증상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검사지 조합 2는, 검사지 조합 1에 포함되지 않은, 스트레스 문항 49개와 '친구와의 불화'에 대한 대처를 묻는 문항을 비롯하여 상황 불안과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를 1과 2로 나눈 이유는 전체 문항의 수가 1회에 응답하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예비척도 문항과 준거 변인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30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1993년 4-5월 사이에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응답자들 중에서 5문항 이상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는 제외한, 279명(대전 95명, 안산 184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79명의 성과 학년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1학년 남학생 집단의 수가 특히 작은 이유는 이들 집단에서의 질문지 응답 누락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검사지 조합 1과 2의 실시 간격은 약 한달을 두었다. 검사는 10-40명을 단위로 하여 해당학교(두 학교 모두 남녀 공학의 학교임)의 교사가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피험자 개인의 중간고사 성적을 얻었다.

표 1. 피험자들의 성별 학년별 분포

	학년	1	2	3	전체
성					
남자		25	54	54	133
여자		55	52	39	146
전체		80	106	93	279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분석과 최종 척도의 구성 및 최종 척도의 심리측정적 성질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나. 조사도구

1. 생활 스트레스 척도 : 대인관계의 4영역과 당

면과제의 4영역으로 하위 분류하여 97개의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둘로 나누어 검사지 조합 1과 2에 넣었다. 검사지 조합 1과 2에는 각 하위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의 수가 비슷하게 되도록 배치했고, 문항의 순서는 무선했다. 생활 스트레스 문항들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그 사건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전혀(0), 보통(1) 혹은 자주(2)에 답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1회 이상 경험한 각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했나를 3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이는 객관적으로 기술된 사건의 경험 빈도 외에 각 사건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이 가중치로 작용할 수 있을까를 탐색해 보기 위한 시도였다.

97개의 예비 문항은 문항-하위척도 전체 사이의 상관, Cronbach의 alpha 계산시 제공되는 정보 및 문항의 변별도 등을 감안하여 74개의 문항으로 줄여졌다. 최종 생활 스트레스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하위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하위 영역별 생활 스트레스 문항

가족 관계

1. 부모님이 형제(혹은 남녀)간에 차별대우를 하셨다.
2.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강요하셨다.
3. 부모님이 하기 싫은 집안일을 시키셨다.
4. 부모님이 지나치게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셨다.
5. 부모님이 서로 심하게 다투셨다.
6.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빠졌다.
7. 가족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 주지 않았다.
8. 부모님이 나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기대하셨다.
9. 가족들 중 누가 나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댔다.

동성친구 관계

1. 친구로부터 무시당했다.
2. 친구와 대화가 되지 않았다.
3. 친구가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
4.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귄 수 없었다.
5.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6. 반 아이가 못살게 굴었다.

7. 반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다.
8. 친구들끼리 편이 갈라졌다.
9. 반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성친구 관계

1. 이성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었다.
2. 이성친구와 다투었다.
3. 이성친구로부터 무시당했다.
4. 이성친구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 선을 긋기 어려웠다.
5. 내가 싫어하는 이성친구가 접근해 왔다.
6. 남자(혹은 여자) 아이들이 공연히 싸움을 걸어 왔다.
7. 이성친구 문제 때문에 학교나 집에서 문제가 됐다.
8. 내가 좋아하는 이성친구가 딴 아이를 좋아했다.
9. 이성친구를 사귄 기회가 없었다.
10.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교사와의 관계

1. 선생님이 차별대우를 하셨다.
2. 선생님이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셨다.
3. 선생님이 부당한 처벌을 하셨다.
4.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
5. 선생님이 성적평가를 편파적으로 하셨다.
6.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7. 선생님이 나를 놀렸다.
8. 선생님이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셨다.
9. 선생님으로부터 이유없이 미움을 받았다.
10.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학업문제

1. 시험이 너무 많았다.
2. 노력해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다.
3.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4. 수업시간이 흥미가 없었다.
5. 숙제가 너무 많았다.
6. 수업시간이 너무 많았다.
7. 공부하는데 주의집중이 되지 않았다.
8.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몰랐다.
9. 시험을 볼 때 긴장해서 아는 문제를 틀렸다.
10. 적성을 몰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락 및 여가활동 문제

1. 여가를 즐길 만한 돈이 없었다.
2.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 하고 싶은 놀이에 참가하지 못했다.
3.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다.
4. 여가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
5. 오락이나 게임에서 상대에게 졌다.
6. 돈이 없어 오락 게임을 하지 못했다.
7.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8. 재미있는 놀이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9. 운동을 잘 하지 못해 공동놀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

1. 외모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2. 여드름이 많아서 고민했다.
3. 신체발육이 내 또래에 비해 너무 늦다고(혹은 빠르다고) 생각했다.
4.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5. 성적인 발달이 빨라서(혹은 늦어서) 놀림을 받았다.
6. 잠이 부족했다.
7.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다.
8.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

일상생활 문제

1. 버스가 복잡했다.
2. 학교에 오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3. 결석이나 지각을 했다.
4. 불량배에게 위협을 받거나 금품을 빼앗겼다.
5. 주위의 소음 때문에 공부에 방해를 받았다.
6. 어른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
7.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다.
8. 나쁜 일을 하는 어른들을 목격하게 됐다.
9. 공부할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2. 대처척도 : 60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나의 평소 성적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스트레스와 '나의 친구나 동료와 다투거나 싸웠다'라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자신이 각 방법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에 대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매우 많이 사용했다의 5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60개의 예비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8개 하위 척도의 45개 문항으로 줄여졌다.

3. 특성 불안(20문항, $\alpha = .85$) : Spielberg, Gorsuch 및 Lushene(1970)의 척도를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및 이진호(1992)가 번안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덕웅 등(1992)의 연구에서는 α 값이 .89였으며, 단일한 요인구조를 보였다.

4. 상태 불안(20문항, $\alpha = .89$) : Spielberg, Gorsuch 및 Lushene(1970)의 척도를 한덕웅 등(1992)이 번안한 척도로, 그들의 연구에서는 α 값은 .93이었으며 단일한 요인구조를 보였다.

5. 우울 척도(20문항, $\alpha = .82$) : CES-D(1977)를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우리말로 번안 재구성한 척도로 α 값은 .89였고, 우울증 환자들을 정신분열증이나 알콜리즘 환자와 의미 있게 구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신체 증상 척도(18문항, $\alpha = .89$) : 한덕웅 등(1992)이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R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문항에서 추출하여 구성한 것으로, α 값은 .93이었다. 척도는 소화장애(5문항), 심장혈관장애(5문항), 통증(5문항) 및 불면(3문항)에 관한 내용으로 세분되어 있다.

특성 불안에서 자기효능감 척도까지는 모두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들이지만, 일부 내용을 중학생들에게 알맞게 쉽게 바꾸거나 일부 문항은 삭제하여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원 척도의 신뢰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으나 신뢰도 계수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α 계수가 .82-.89)에 이르고, 요인분석의 결과도 한덕웅 등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중학생용 척도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모든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는 구성개념의 정도도 높아지도록 채점하였다.

7. 성적: 중간고사의 성적을 수집하였다. 입수한 교과목 성적의 전체 합계 점수를 피험자가 속해 있는 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수로 환산했다.

결 과

가. 스트레스 척도

1. 기술적 자료:

자료가 안산과 대전의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두 지역 집단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8개 스트레스의 하위 척도 모두와 전체 척도 점수에서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추후의 분석에서는 두 지역 집단의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생활 스트레스의 빈도를 하위 척도별로 산출해서 하위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냈다. 척도별로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를 해당 문항수로 나누어 각 문항별 평균이 되도록 하였다.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0, 1-2회는 1, 그리고 2회 이상은 2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반응 평균이 높은 순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업 문제(M=1.11, SD=0.32),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M=0.93, SD=0.33), 오락 및 여가활동 문제(M=0.92, SD=0.33), 동성친구 관계(M=0.90, SD=0.38), 일상 과제 문제(M=0.87, SD=0.33), 가족관계(M=0.78, SD=0.37), 교사와의 관계(M=0.62, SD=0.37) 및 이성친구와의 관계(M=0.41, SD=0.34).

위의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중학생들은 학업, 건강 및 신체발육, 오락 및 여가활동 문제와 동성친구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빈도가 비교적 낮고 교사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경험 정도를, 문항

별 평균으로 계산해서, 성과 학년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 표 3이다.

성과 학년별 차이를 2원 변량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내용을 성과 학년의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효과의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문제[F(1, 274)=9.99, P<.01]와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F(1, 274)=13.32, P<.01]에서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2학년 집단은 1학년 집단에 비해 동성친구 관계[F(2, 276)=7.28, P<.01], 이성친구 관계[F(2, 276)=10.18, P<.01], 오락 및 여가활동 문제[F(2, 276)=3.98, P<.05],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F(2, 276)=3.72, P<.05] 그리고 전체 스트레스[F(2, 276)=5.35, P<.01]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빈도가 낮았다. 2학년은 3학년 집단에 비해서 가족관계[F(2, 276)=3.04, P<.05], 동성친구 관계[F(2, 276)=11.57, P<.01], 이성친구 관계[F(2, 276)=4.44, P<.05], 교사와의 관계[F(2, 276)=5.45, P<.01], 오락 및 여가활동 문제[F(2, 276)=3.42, P<.05],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F(2, 276)=6.65, P<.01] 그리고 전체 스트레스[F(2, 276)=13.87, P<.01]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빈도가 낮았다. 3학년 집단은 1학년 집단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F(2, 276)=9.13, P<.01]와 학업 문제 [F(2, 276)=4.25, P<.05]의 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서는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F(2, 274)=7.87, P<.01].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남자 집단에서도 학년별 차이가 유의했고[F(2, 274)=4.83, P<.01], 여자 집단에서도 학년별 차이가 유의했다[F(2, 274)=13.55, P<.01]. 남자 집단에서는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반해[F(2, 130)=3.17,

표 3. 성과 학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하위 영역별 경험의 평균(표준편차)

성	스트레스 : 학년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교 사	학업문제	오락·여가	건강·신체	일상생활
남 자	1학년	0.75 (0.32)	1.02 (0.34)	0.46 (0.41)	0.73 (0.40)	1.07 (0.33)	0.98 (0.33)	0.77 (0.28)	0.90 (0.22)
	2학년	0.65 (0.33)	0.75 (0.35)	0.29 (0.28)	0.51 (0.30)	0.95 (0.29)	0.86 (0.33)	0.80 (0.28)	0.81 (0.31)
	3학년	0.83 (0.33)	1.00 (0.34)	0.43 (0.35)	0.70 (0.38)	1.21 (0.25)	0.99 (0.36)	0.92 (0.35)	0.92 (0.34)
	전 체	0.74 (0.34)	0.91 (0.37)	0.38 (0.34)	0.62 (0.37)	1.08 (0.30)	0.93 (0.35)	0.84 (0.31)	0.87 (0.31)
여 자	1학년	0.84 (0.42)	0.94 (0.42)	0.54 (0.33)	0.44 (0.34)	1.15 (0.33)	0.97 (0.34)	1.02 (0.34)	0.87 (0.31)
	2학년	0.75 (0.35)	0.78 (0.39)	0.31 (0.28)	0.62 (0.34)	1.10 (0.34)	0.82 (0.29)	0.90 (0.29)	0.80 (0.26)
	3학년	0.91 (0.40)	1.00 (0.34)	0.44 (0.36)	0.83 (0.35)	1.36 (0.32)	0.92 (0.37)	1.11 (0.33)	0.94 (0.34)
	전 체	0.83 (0.39)	0.90 (0.34)	0.43 (0.33)	0.61 (0.37)	1.19 (0.34)	0.90 (0.33)	1.00 (0.33)	0.86 (0.30)

$P < .05$], 여자 집단에서는 3학년이 1학년[F(2, 143)=13.91, $P < .01$]에 비해 그리고 2학년이 1학년[F(2, 143)=4.83, $P < .01$]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 집단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F(2, 274)=9.49, $P < .01$].

위의 결과를 요약해서 보면, 3학년과 1학년에 비해 2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경험 빈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며, 3학년은 학업 문제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다른 학년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척도의 신뢰도 :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은 .90이었으며, 하위 척도별 alpha 값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66), 친구관계(.68), 이성친구 관계(.77), 교사와의 관계(.73), 학업문제(.67), 오락 및 여

가활용 문제(.59), 건강 및 신체 발육문제(.56), 일상생활 문제(.54).

내적 일관성 계수들은 대인관계 유형에 비해 당면과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일상생활 문제 등의 몇몇 하위 영역에서 .60이하의 alpha 값이 얻어졌으나, 일관성의 정도가 동일한 하위 스트레스 영역에 속하는 생활사건들의 공발생 정도로 측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하위 척도들의 일관성 계수는 받아들일만 하다고 판단된다.

3.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 :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신체적인 증상 및 성적 등을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중요한 준거 변인들로 보았는데, 스트레스의 하위 척도들 및 전체 척도와 준거 변인들 사이의 상관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생활 스트레스 하위 척도들과 준거 변인들 사이의 상관

준거변인 스트레스 척도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신체 증상	학업 성적
대인 관계					
가족 관계	.33**	.41**	.49**	.34**	-.18*
친구 관계	.35**	.29**	.41**	.31**	-.06
이성 관계	.30**	.21**	.24**	.21**	-.18*
교사와의 관계	.35**	.43**	.43**	.23**	-.17*
당면 과제					
학업 문제	.34**	.34**	.42**	.32**	-.23**
오락 및 여가활동 문제	.26**	.21**	.34**	.16*	-.03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	.41**	.41**	.43**	.41**	-.41+
일상생활 문제	.30**	.37**	.41**	.26**	-.08
전체 척도	.47**	.48**	.57**	.40**	-.18*

+ $P < .05$, * $P < .01$, ** $P < .001$, 양방검증

본 연구의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하위 척도와 전체 척도 모두 부적응을 나타내는 준거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특히, 전체 척도는 선행 스트레스 연구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30대의 상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학업 성적은 부적응을 나타내는 준거 변인들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여 본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은 건강 및 신체발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고, 불안은 가족 및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 및 신체발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높게 연관되며, 신체 증상은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와 그리고 학업성적은 학업 문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특성 불안은 스트레스의 하위 척도나 전체 척도와 관련되는 정도가 높고, 건강 및 신체발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경험은 모든 부적응 지수들과 높게 연합된다.

4.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분석 :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구조가 척도를 구성하는 사전 모형과 얼마나 합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했다. 스트레스 하위 영역별 점수를 얻고 추출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주성분 분석을 했으며, varimax 법으로 회전시켰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개별 하위 영역들이 예상하는 방향대로 대인관계와 당면과제의 큰 범주로 묶이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5는 회전된 요인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대인관계와 당면한 과제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는 요인이 뚜렷이 구분되기보다는 서로 섞이는 요인구조를 보였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는 당면한 과제 영역들이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요인 1에만 높게 부하되어 있다. 아울러, 가족 관계와 동성친구 관계, 오락과 건강 문제 등의 영역은 두 요인 모두에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2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58.0%였다.

표 5. 스트레스 하위 영역들의 회전 후 요인행렬

하위 영역	요인 1	요인 2	h ²
가족 관계	.44	.59	.54
동성친구 관계	.58	.55	.64
이성친구 관계	.01	.87	.76
교사와의 관계	.65	.18	.45
학업 문제	.79	-.03	.63
오락·여가활동 문제	.66	.39	.59
건강·신체발육 문제	.61	.46	.59
일상생활 문제	.62	.23	.44

나. 대처 척도

1. 최종 척도의 구성 :

스트레스 척도에 비해 대처의 하위 척도별 구성은 좀 더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요인분석 결과를 보고 하위 척도를 재구성했다. 대처척도는 '나쁜 성적'과 '친구와의 불화'에 대해 두 차례를 평가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나쁜 성적'에 대한 대처 응답을 분석재료로 삼았다. 60개의 예비 문항에 대해 주성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법으로 회전시켜 본 결과, 8개 요인을 추출했을 때 요인들의 해석이 가장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설명 변량, 43.6%). 따라서 8개의 대처 하위 척도를 구성하고, 해당 요인에는 .35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고 다른 요인에는 .30 이상의 부하를 보이지 않는 문항들만 소속시켰다.

요인분석과 신뢰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의 표 6에 제시했다.

표 6. 대처 척도의 하위 요인(척도)과 신뢰도 (Cronbach alpha)

요인 1 : 적극적 문제 해결 ($\alpha = .75$)

- 1.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67
- 2.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운다 .65
- 3.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 .62

- 4. 이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비를 한다 .61
- 5.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57
- 6. 나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났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56
- 7. 자신을 탓하고 자책한다 .46
- 8.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41

요인 2 : 외적 감정 발산 ($\alpha = .58$)

- 1. 뒤에서 상대를 욕한다 .69
- 2.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상대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 .63
- 3. 감정을 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한다 .62
- 4. 앞으로 보복을 다짐한다 .62
- 5.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있는 상대에게 따진다 .50
- 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면돌파를 시도한다 .45

요인 3 : 사회적 지원 추구 ($\alpha = .73$)

- 1.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위의 도움을 청한다 .69
- 2. 걱정거리를 친구나 가족에게 고백하고 위로를 구한다 .69
- 3. 가족 중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64
- 4.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과 이해를 구한다 .61
- 5. 친구나 가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53
- 6. 나의 하소연을 들어 줄 사람을 찾는다 .50

요인 4 : 내적 감정 억제 ($\alpha = .60$)

- 1.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르는 체한다 .57
- 2. 혼란되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다 .56
- 3. 나의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의 뜻대로 따른다 .52
- 4. 속으로만 삭인다 .50
- 5. 문제해결을 위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40

요인 5 : 내적 감정 발산 ($\alpha = .66$)

- 1.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64
- 2. 감정을 풀려고 운다 .64

3. 다른 사람 모르게 온다	.60
4.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한다	.45

요인 6: 거리두기 ($\alpha = .59$)

1. 마음을 딛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한다	.61
2. 일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계없이 기존 신념에 따른다	.51
3.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48
4. 문제에 관계없이 나대로의 생활방식을 고집한다	.42
5.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한다	.41
6. 이 일이 현실이 아니기를 빈다	.37

요인 7: 체념·철수 ($\alpha = .50$)

1. 더 작은 것에 만족하려 한다	.56
2. 운으로 돌린다	.56
3. 그 일을 잊어버리려 한다	.44
4. 나의 감정을 가능한 억제한다	.37
5.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이야기할 것을 걱정한다	.37
6. 문제를 풀이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한다	.36

요인 8: 긍정적 비교 ($\alpha = .60$)

1. 나보다 못한 주위 사람을 생각한다	.81
2. 나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과 비교한다	.55
3.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에게 해결책을 물어본다	.49
4. 문제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41

요인분석 결과, 접근적 대처 전략에서의 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 추구 및 긍정적 비교와 회피적 전략에서의 외적 감정발산, 내적 감정 억제 및 거리두기 등은 예비 척도의 구성에서와 유사한 문항 소속을 보였다. 그러나, 소망적 사고나 종교적 대처 등의 독립적인 요인은 없어진 대신 체념·철수나 내적 감정 발산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적당한 요인이 나타났다. 체념·철수나 외적 감정 발산 및 거리두기 등의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가 .60에 못 미치나 척도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기술적 자료 :

스트레스 척도의 경우와 같이, 대처 하위 척도들에 대해서도 대전과 안산 지역의 피험자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폈다. 8개의 하위 척도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없어 두 지역의 자료를 통합해서 분석했다.

평소보다 훨씬 나쁜 성적을 받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나를 물어 각 하위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냈다. 척도별로 문항수가 달라서 하위 척도별 점수를 해당 문항수로 나누어 문항별 평균값이 되도록 했다. 응답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1)에서 매우 많이 사용했다(5)의 5점 척도로 3이 중간점이 된다. 평균값이 높은 순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적 감정 발산 ($M=3.14, SD=0.92$), 적극적 문제해결 ($M=3.00, SD=0.69$), 긍정적 비교 ($M=2.89, SD=0.81$), 체념·철수 ($M=2.89, SD=0.63$), 거리두기 ($M=2.68, SD=0.67$), 내적 감정 억제 ($M=2.62, SD=0.74$), 외적 감정 발산 ($M=2.59, SD=0.71$) 및 사회적 지원 추구 ($M=2.48, SD=0.79$).

하위영역별 대처 정도를, 문항별 평균으로 계산해서, 성과 학년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 표 7이다.

성과 학년별 차이를 2원 변량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 집단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원 추구 [$F(1, 274)=8.73, P<.01$]와 내적 감정 발산 [$F(1, 274)=106.03, P<.01$]의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집단은 1학년 집단에 비해 적극적 문제해결의 대처를 더 많이 사용했다. [$F(1, 276)=4.72, P<.01$]. 한편, 3학년 집단은 1학년 집단에 비해 거리두기 [$F(1, 276)=3.78, P<.05$]와 긍정적 비교 [$F(1, 276)=3.24, P<.05$]의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과 확년에 따른 하위 영역별 대처 노력의 평균(표준편차)

대처영역 : 성 학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남 자	1학년	2.74 (0.68)	2.67 (0.73)	2.33 (0.59)	2.53 (0.70)	2.59 (0.90)	2.56 (0.62)	2.64 (0.57)	2.92 (0.81)
	2학년	3.03 (0.64)	2.47 (0.77)	2.39 (0.76)	2.45 (0.73)	2.37 (0.75)	2.69 (0.64)	2.69 (0.64)	2.77 (0.75)
	3학년	3.00 (0.63)	2.70 (0.71)	2.27 (0.81)	2.62 (0.69)	2.66 (1.00)	2.80 (0.61)	2.86 (0.55)	3.02 (0.91)
	전 체	2.97 (0.65)	2.60 (0.74)	2.33 (0.75)	2.53 (0.70)	2.53 (0.89)	2.71 (0.63)	2.75 (0.60)	2.90 (0.87)
여 자	1학년	2.83 (0.71)	2.56 (0.75)	2.54 (0.71)	2.56 (0.71)	3.61 (1.10)	2.55 (0.76)	2.90 (0.66)	2.73 (0.73)
	2학년	3.22 (0.72)	2.58 (0.58)	2.62 (0.84)	2.76 (0.76)	3.73 (0.99)	2.69 (0.65)	3.04 (0.56)	2.85 (0.69)
	3학년	3.03 (0.74)	2.62 (0.75)	2.70 (0.91)	2.68 (0.83)	3.97 (1.07)	2.79 (0.72)	3.15 (0.66)	3.15 (0.78)
	전 체	3.02 (0.74)	2.58 (0.69)	2.61 (0.81)	2.67 (0.76)	3.75 (1.06)	2.66 (0.71)	3.01 (0.63)	2.89 (0.74)

요인 1: 적극적 문제해결, 요인 2: 외적 감정 발산, 요인 3: 사회적 지원 추구, 요인 4: 내적 감정 억제, 요인 5: 내적 감정 발산, 요인 6: 거리두기, 요인 7: 체념·철수, 요인 8: 긍정적 비교.

표 8. 대처 하위 척도들과 준거 변인들 사이의 상관

대처 척도	준거변인	우울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신체 증상	학업 성적
<u>접근적 대처 전략</u>						
적극적 문제해결		-.02	.11	.08	.14+	.21**
사회적 지원 추구		.04	.14+	.11	.05	-.07
긍정적 비교		.06	-.01	.07	.10	-.15+
<u>회피적 대처 전략</u>						
외적 감정 발산		.28**	.13+	.27**	.25**	-.11
내적 감정 억제		.25**	.12+	.20*	.22**	-.02
내적 감정 발산		.26**	.34**	.36**	.21**	-.14+
거리 두기		.23**	.10	.21**	.25**	-.09
체념·철수		.18*	.18*	.34**	.28**	-.09

+ P<.05, * P<.01, ** P<.001, 양방향검증

3.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 :

하위 대처 척도들과 준거 변인들 사이의 상관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접근적 대처 전략의 하위 척도들은 적극적 문제 해결이 학업성적 및 신체 증상과 정적으로, 긍정적 비교가 성적과 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지원 추구가 상태 불안과 정적으로 연관되는 외에는, 준거 변인들과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회피적 대처 전략의 하위 척도들은 부적응을 나타내 주는 준거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준거 변인인 우울이나 특성 불안 그리고 신체 증상 등이 대부분의 회피적 대처 전략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내적 감정 발산이나 외적 감정 발산적 대처가 부적응 지수들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연관됨을 알 수 있다.

4. 대처 하위 척도들의 요인분석 :

대처 하위 척도들의 요인구조가 접근적인 것과 회피적인 것으로 대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했다. 대처 하위 영역별 점수를 얻고 추출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주성분 분석을 했으며, varimax법으로 회전시켰다. 표 9는 회전된

요인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대처 하위 영역들의 회전 후 요인행렬

하위 영역	요인 1	요인 2	h ²
<u>접근적 대처</u>			
적극적 문제해결	-.03	.72	.53
사회적 지원 추구	.07	.75	.58
긍정적 비교	.32	.64	.59
<u>회피적 대처</u>			
외적 감정 발산	.72	.02	.52
내적 감정 억제	.72	.01	.51
내적 감정 발산	.55	.31	.39
거리두기	.75	.05	.57
체념·철수	.65	.20	.47

대처의 하위 영역들은 척도의 구성시에 가정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접근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로 비교적 잘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적 감정발산과 긍정적 비교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에도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2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56.1%였다.

표 10. 대처 하위 척도들 사이의 상관

친구와의 불화에 대한 대처 나쁜 성적에 대한 대처	1	2	3	4	5	6	7	8
<u>접근적 대처 전략</u>								
1. 적극적 문제해결	.59**	.21**	.30**	-.04	.13+	.10	.03	.20*
2. 사회적 지원 추구	.18*	.66**	.33**	.18*	.02	.28**	.04	.09
3. 긍정적 비교	.26**	.21**	.48**	.13+	.13+	.20*	.17*	.29**
<u>회피적 대처 전략</u>								
4. 외적 감정 발산	-.00	.15 -	.16*	.68**	.28**	.31**	.36**	.29**
5. 내적 감정 억제	-.01	.04	.16*	.23**	.51**	.21**	.21**	.28**
6. 내적 감정 발산	.05	.26**	.22**	.32**	.30**	.77**	.10	.24**
7. 거리 두기	.08	.06	.25**	.38**	.29**	.17**	.49**	.32**
체념·철수	.14+	.09	.27**	.27**	.28**	.24**	.22**	.48**

+ P<.05, * P<.01, ** P<.001, 양방검증.

5. 대처 전략의 범상황적 일관성 :

‘나쁜 성적’과 ‘친구와의 불화’에 대한 대처 전략들 사이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10이다.

상이한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하위 전략들 사이의 상관은 .48에서 .77까지로 비교적 높다. 이는 당면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성질이 달라 지더라도 사용하는 대처 전략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내·외적 감정 발산이나 사회적 지원의 추구가 특히 안정된 특성으로서의 개인차에 해당하는 대처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논 의

가.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의 전체 척도($\alpha=.90$)와 하위 척도들(.54-.77)의 신뢰도는 비교적 받아들일만 했다. 부적용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서나 신체의 이상을 대표하는 지수들과 전체 척도 및 모든 하위 척도의 점수가 정적으로 관련되고, 그 관계의 정도도 선행 스트레스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학업 성적과는 가족 관계, 이성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 문제,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 및 전체 스트레스 척도 점수가 부적으로 관련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가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함을 의미한다.

한편, 실증적 자료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는 척도 개발의 이론적인 틀과 만족할만한 정도로 합치되지는 못했다.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들은 척도의 구성시에 가정했던대로 대인관계와 당면과제의 영역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또, 개별 문항을 대인관계와 당면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4개의 요인을 추출한 요인분석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각 영역에서 4개의 하위요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이 30% 정도에 불과하고, 독립적이라고 가정했던 하위 요인들이 서로 섞이는 경향이 있었다. 척

도의 구성타당도 문제는 앞으로의 다각적인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학생들은 대인관계 영역($M=0.68$)보다는 당면과제 영역($M=0.96$)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하위 영역은 학업문제와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였다. 한국의 교육적 환경과 사춘기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고려해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전경규와 김교현, 1991)와는 상이하다. 대학생들은 가치관과 장래 및 진로 문제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이 두 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들이 사춘기적인 변화가 더 심하고 학업 성적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3학년은 1, 2학년에 비해 학업문제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다급하게 압력을 주는, 3학년의 긴장된 생활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2학년은 1, 3학년에 비해 가족, 친구 및 이성관계와 오락 및 여가활용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의 신입생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1학년이나 상급 학교의 진학과 관련된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3학년에 비해 2학년이 갖는 적응상의 이점 때문에 아닐까 짐작된다. 전체 척도상에서도 2학년은 1, 3학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대처 척도

대처의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50-.70)는 비교적 받아들일만 했다. 외적 감정 발산, 내적 감정 억제, 내적 감정 발산, 거리두기, 체념·철수 등의 회피적 혹은 정서중심적 대처 전략들은 우울이나 불안 및 신체 증상 등 부적용의 지수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학업 성적은 적극적인 문

제해결과는 정적으로, 내적 감정 발산 및 긍정적 비교와는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척도의 요인구조는 사전에 가정했던 척도의 구성과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대처 하위척도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접근적 전략과 회피적 전략으로 명명할 수 있는 요인이 얻어졌다. 이런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처 척도가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함을 의미한다.

접근적인 대처 전략의 하위 유형들과 회피적 대처 전략의 외적 감정발산, 내적 감정 억제 및 거리두기 등은 예비척도의 구성시 분류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문항들이 포함되는 요인구조를 얻었다. 그러나 종교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그 성질이 다른 요인으로 바뀌었다. 소망적 사고는 본 연구의 체념·철수와 내용상 관련성이 있으나, 체념·철수는 현실을 부정하고 소망스런 결과에 대한 환상을 그리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포기하고 잊어버리려는 노력에 가깝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로, 나쁜 성적을 받은 사건은 너무나 그 성질이 분명해 소망적인 사고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교적 대처도 중학생의 인지적 수준에서는 감정을 내부적으로 털어내 놓고 발산하는 대처와 기능적인 의미가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학생들은 나쁜 성적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회피적인 전략($M=2.66$)에 비해 접근적인 전략($M=2.79$)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내적 감정 발산과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간 갈등 사건에 대한 대처에서도 이런 경향성은 동일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내적 감정 발산과 사회적 지원 추구의 대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대처 유형은 전통적인 여성 고정관념에 더 부합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그리고 3학년은 1학년에 비해 긍정적인 비교와 거리두기의 대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성숙에 따라, 대처 전략의 다양성이 증가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겠다.

대처의 하위 유형들을 접근적 대 회피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대처의 하위 전략들을 요인분석해 본 결과, 2개의 독립적인 요인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회피적 대처 전략들은 부적용지수들과 일관되게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의 양상은 스트레스 사건의 성질이 달라지더라도(나쁜 성적 대 대인갈등) 거의 유사했다. Lazarus 등의 주장처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대처 노력이 경주되고 대처의 결과는 맥락이나 시점에 따라 가변적임을 인정하더라도, 접근적 대 회피적 혹은 문제중심적 대 정서중심적 대처 전략의 일반적인 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대처의 범상황적 일관성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스트레스 사건의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처 전략들과의 상관보다는 동일한 대처 전략들끼리의 상관이 훨씬 높았다(.48-.77). 이런 상관은 Causey와 Dubow(1992)의 연구 결과(.38-.68)에 비해 그 정도가 더 높다. 나쁜 성적과 대인 갈등에 대한 대처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해 본 결과, 적극적인 문제해결[나쁜 성적: $M=3.0$, 대인갈등: $M=2.84$, $t(278)=4.27$, $P<.01$]과 사회적 지원의 추구[나쁜 성적: $M=2.48$, 대인갈등: $M=2.35$, $t(278)=3.08$, $P<.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머지 대처 전략들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의 대처 전략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정할 수 있겠다.

Eccles, Midgley, Wigfield, Buchanan, Reuman, Flanagan 및 MacIver(1993)는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의 문제가 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발달 단계에서 현저해지는 욕구와 환경 사이의 적합성이나 조화(fitness)가 깨어질 때 동기나 수행 혹은 행동의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ccles 등(1993)은 초기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으

로, 자율과 자결에 대한 욕구의 증가, 동료 지향성, 이성 관계에 대한 관심, 자의식의 증가, 정체감 문제의 두드러짐 및 추상적인 인지적 활동 능력을 들고 있다. 본 연구의 중학생들은 학업과 건강 및 신체발육 문제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런 하위 영역의 스트레스는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에 비해 정서적 문제(불안, 우울)나 신체적 병리 및 학업 수행 등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런 특정 영역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이 적지 않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한국의 중학생을 대표하기에는 사례수나 표본 지역 등의 제한이 있다. 스트레스와 대처의 일부 하위 척도들은 신뢰도가 낮았다. 요인분석 결과,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보완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중앙정성출판부.

김교현, 전경구(199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경험분석. 장동환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436-458.

윤유경(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 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미 발표 논문.

전경구(1989). 인간 정서에 관한 제어이론적 조망. 한국심리학회 '89년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45-52.

전경구(1992). 대처기제 이해를 위한 포괄적 이론; 제어이론적 조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1(1), 176-195.

전경구, 김교현(1989). 스트레스와 대처 그리고 정신병리. 한국심리학회 '89년차대회 학술발

표 논문 초록, 120-129.

전경구, 김교현(1991).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제어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0(1), 137-158.

전경구,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1(1), 65-76.

전경구, 조신웅, 김교현(1992). 다차원 대처 척도의 개발 연구 I: 제어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92년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425-435.

전경구,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김교현(1992). 다차원적 대처 척도 개발 연구 II: 이론적 토대 및 실정적 결과. 장동환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241-281.

한덕용,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호(1992). 대학생들의 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불안, 우울 및 신체형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92년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447-462.

Asarnow, J.R., Carlson, G.A., & Guthrie, D.(1987). Coping strategies, self-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Band, E.B., & Weisz, J.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Bedell, J., Giordani, B., Tavormina, J., & Boll, T.(1977). Life stress and the psychological and medical adjustment of chronically ill childr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rarch*, 21, 237-242.

Carver, C.S., & Scheier, M.F.(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Carver, C.S., & Scheier, M.F., &

- Weintraub, J.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ausey, D.L., & Dubow, E.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Development*, 21, 47-59.
- Coddington, R.D. (1977a).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7-18.
- Coddington, R.D. (1977b).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II.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205-213.
- Compas, B.E. (1987a).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Compas, B.E. (1987b).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mpas, B.E., Malcarne, V.L., & Fondacaro, K.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ohrenwend, B.P., & Shrout, P.E. (1985). "Hassel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variables. *American Psychologist*, 40, 780-785.
- Dohrenwend, B.S., Krasnoff, L., Askenasy, A.R., & Dohrenwend, B.P. (1978). Exemplification of a method for scaling life events: The PERI Life Event Sca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05-229.
- Eccles, J.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M., Reuman, D., Flanagan, C., & MacIver, D. (1993).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in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8, 90-101.
- Endler, N.S., & Parker, J.D.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954.
- Folkman, S., & Lazarus, R.S. (1980).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J. (1986).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Gersten, J., Langner, T., Eisenberg, J., & Orzeck, L. (1974). Child behavior and life events: Undesirable change or change perse? In B.S. Dohrenwend & B.P. Dohrenwend (Eds.), *Stressful life events* (pp. 159-170). New York: Wiley.
- Holmes, R., & Rahe, R.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Hudgens, R.W. (1974). Personal catastrophe and depression: A consideration of the subject with respect to medically ill adolescents, and a requiem for retrospective life-event studies. In B.S. Dohrenwend & B.P. Dohrenwend

- (Eds.), *Stressful life events* (pp. 119-134). New York : Wiley.
- Jacobs, R., & Charles, E.(1980). Life events and the occurrence of cancer in children. *Psychosomatic Medicine*, 42, 11-24.
- Johnson, J., & McCutcheon, S.(1980). Assessing life stress in older children and adolescents : Preliminary findings with the Life Events Checklist. In I. Sarason & Spielberg(Eds.), *Stress and Anxiety*(vol. 7, pp.111-125). Washington, DC : Hemisphere.
- Kranner, A.D., Feldman, S.S., & Weinberger, D.A.(1987). Uplifts, hassles, and adaptational outcomes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ts*, 7, 371-394.
- Lazarus, R.S., & Cohen, J.B.(1977). Environmental stress In L. Altman & F Wohlwill(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vol. 2, pp.89-127). New York : Plenum.
- Lazarus, R.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1985). Stress and adaptional outcomes : The problem of confounded measur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McGraw-Hill.
- Pertersen, A.C., Kennedy, R.E., & Sullivan, P.(1991). Coping with adolescence. In M.E. Colten and S. Gore (Eds.), *Adolescent Stress*, (pp.93-110). New York : Aldine.
- Roth, S., & Cohen, L.J.(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Spielberger, C.D., Gorsuch, R.L., & Lushene, R.E.(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 : Counseling Psychologist Press.
- Swearingen, E.M., & Cohen, L.H.(1985). Measurement of adolescents' life event : The Junior high life experience surve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69-85.
- Vinokur, A., & Selzer, M.(1975). Desirable versus undesirable life events :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and ment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29-337.
- Zautra, A.J. Guarnaccia, C.A., & Dohrenwend, B.P.(1986). Measuring small life ev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9-655.
- Zautra, A.J., & Reich, J.(1983). Life events and perceptions of life quality : Developments in a two factor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21-132.

Development of a Life Stress and Coping Scale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Kyo-Heon Kim

Kyum-Koo Chon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Taegu University

An attempt was made to develop a life stress and coping scale for Kore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tems, used in the preliminary scale were selected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references on life stress and coping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addition, some items were selected from a preliminary survey on life stress and coping, using an open questionnaire. Items used in the scale were selected by item analysis. Participants were 204 (preliminary survey) and 279 (item analysis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ife stress scale composed of 8 subscales were shown to be satisfactory. Those of the coping scale which is also composed of 8 subscales were shown to be satisfactory too. Finally,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and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in coping strategies were discussed.